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코로나19 이후 범죄발생의 변화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세계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이후 범죄는 재택 제한의 영향으로 살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살인범죄의 경우 일일 발생 건수 자체가 워낙 적어 코로나19의 발생 추이와 연관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 강도범죄는 코로나19 1차 급증기와 2차 급증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 폭행(상해)범죄의 경우 2020년 8–9월에는 다른 해에 비해 범죄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봉쇄가 강화되었다가 다소 완화되는 기간에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성폭력범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1차 급증기 직후인 4월과 2차 급증기 직후인 9월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
- 가정폭력범죄는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트폭력범죄는 2020년에도 지난 2년간 발생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 절도범죄는 지난 3년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월 초까지는 지난 2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다소 많이 발생하여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증가추세가 멈추고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사기범죄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는 지난 2020년을 지내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보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발생과 대유행은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몸으로 알게 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여러 영역을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는 범죄와 치안에도 영향을 끼쳤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범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절도나 무단침입, 약물남용, 기물파손 등과 같은 경미한 범죄들의 감소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인폭력이나 살인 등과 같은 심각한 폭력은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Nivette, et al., 2021). 상대적으로 사소한 절도 등과 같은 범죄의 감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면서 범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감소하면서 범죄의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Boman et al., 2020; Estévez-Soto, 2020). 반면 감염병의 창궐과 이에 따른 격리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폭력과 같은 표출적 범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인 폭력이나 살인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Campedelli et al., 2020). 이처럼 범죄의 발생 역시 코로나19의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안활동과 형사정책적 대응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 추이와 그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주로 살펴볼 것이다.[1] 이에 앞서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양상을 분석한 국제비교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또는 새로운 감염병의 발현 등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함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범죄의 발생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치안정책연구소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 중 2018년, 2019년 신고자료 및 2020년 10월까지의 신고자료를 분석하였다.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는 경찰청 승인통계인 「범죄통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는 잠정통계로서 전국 각 지역 경찰관서에서 접수된 112 신고내용 중 범죄 유형과 발생일시를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데이터에는 중복 신고, 오인신고 등이 포함되어 과대 측정의 가능성이 있으며,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되지 않은 인지사건, 경찰서 신고사건 등은 누락되어 과소 측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시된 수치는 그 크기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세와 경향성을 읽는 것에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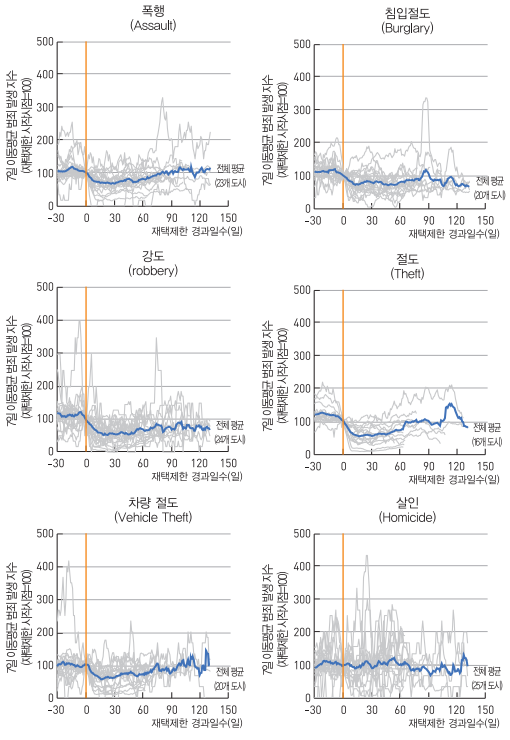
그러나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의 유용성 또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승인통계는 당해 연도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 말에 수치가 정리되어 발표된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의 총계로서만 발표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변화하는 범죄 발생의 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전국112신고접수」 데이터는 잠정통계이기는 하지만 신고와 동시에 집계되는 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일의 범죄 발생 변화 양상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표현한 '발생' 또는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발생 신고' 또는 '사건 신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으나 자연스러운 서술과 가독성을 위해 '신고'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

1) 이 글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수시보고서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2021)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양상

[그림 X-14]는 세계 23개국의 27개 주요 도시에서 나타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에 포함된 도시는 북미 5개 도시(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멕시코시티, 토론토, 밴쿠버), 남미 7개 도시(칼리, 과야킬, 리마, 멘도사, 몬테비데오,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유럽 11개 도시(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하노버, 헬싱키, 류블랴나, 런던, 말뫼, 스톡홀름, 탈린, 텔아비브, 취리히), 아시아 2개 도시(서울, 무자파라바드), 오세아니아 2개 도시(오클랜드, 브리즈번)이다.

[그림 X-14] 세계 주요 도시 '재택제한' 전후 일일 범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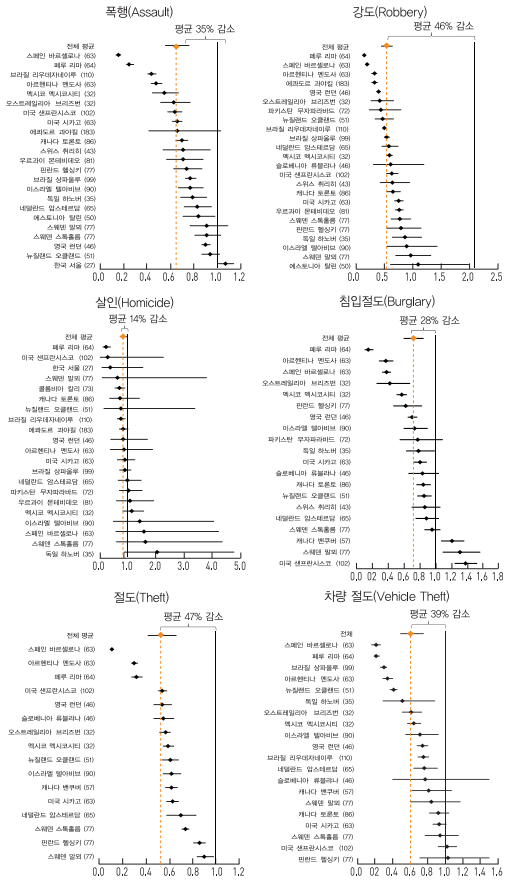


출처: Nivette, et al., 2021.

각 도시에서 '재택제한(stay-at-home restrictions)' 조치(또는 권고)가 최초로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재택제한 전후의 범죄 발생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택제한이 살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한 시행에 따른 범죄 발생 건수의 변화는 범죄유형과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경향은 재택제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보인다(Nivette, et al., 2021).

[그림 X-15]는 범죄유형별로 범죄 발생에 대한 재택제한의 영향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폭력범죄를 살펴보면, 폭행의 경우 재택제한 시행 이후 평균 약 35%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강도는 평균 47%가 감소하였다. 살인은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도시는 3개 도시(리마, 칼리, 리우데자네이루)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재산범죄에 대한 재택제한의 영향을 살펴보면, 침입절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도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절도는 평균적으로 약 47% 감소하였지만 도시마다 큰 편차를 나타낸다. 차량절도는 평균적으로 약 39%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증가한 도시도 많이 발견된다(Nivette, et al., 2021).

[그림 X-15] 세계 주요 도시 일일 범죄 발생에 대한 '재택 제한'의 영향 비교



주: 1) 개별 도시의 통계치는 일일 범죄 발생에 대한 재택제한의 효과를 '중단시계열분석방법(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로서, 그림에서 표식은 재택제한 전 범죄 발생률을 1이라고 할 때 재택제한 이후 범죄 발생률을 비(ratio)로 나타낸 것임. 각 표식의 가로 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개별 도시명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재택제한 일수임.
2) 각 범죄유형의 전체 평균은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출처: Nivette, et al., 2021.

코로나19와 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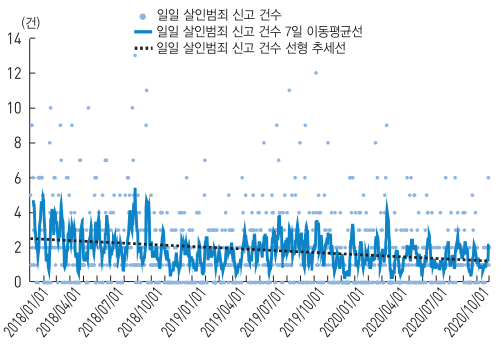
살인범죄

살인범죄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도 이러한 감소추세를 유지하였다(그림 X-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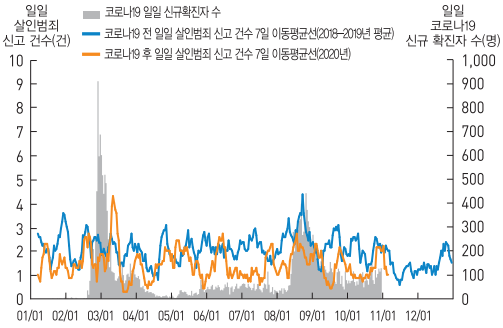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X-16-2]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급증기인 2020년 2월 중순의 경우 다른 해와 다르게 다소 증가하였고, 2차 급증기인 2020년 8월 중순에도 다소 증가하였다. 다만 8월 중순의 경우 예년에도 가장 많은 살인이 발생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해에 비하여 더 적게 증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월은

[그림 X-16] 코로나19 전후 일일 살인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일일 살인범죄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일일 살인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2020년의 살인 발생이 2018–2019년 평균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시기이다.

살인범죄의 경우 일간 발생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의 발생 추이와 코로나19의 연관성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강도범죄

강도범죄는 2020년의 경우 [그림 X–17–1]에서처럼 지난 2년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으나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2020년의 감소가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1차 급증기와 2차 급증기에 강도범죄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는 것이 발견된다. [그림 X–1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월과 8월의 경우 2018–2019년 평균 발생 건수와 2020년 평균 발생 건수의 차이가 가장 컸다. 그러나 급증기가 지나면서 바로 발생 건수가 회복되어 급증기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주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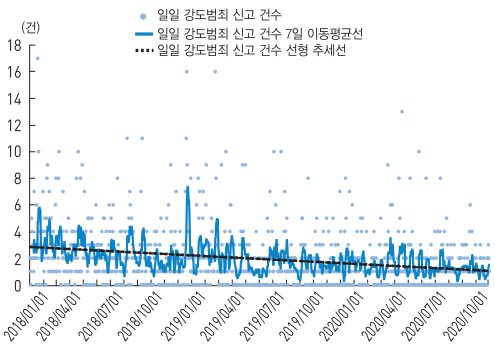
폭행(상해)범죄

폭행(상해)범죄는 8–9월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약한 주기성을 보이며, 지난 3년간 증감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그림 X–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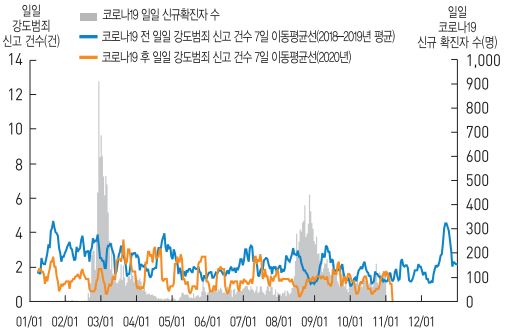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폭행(상해) 사건의 발생 건수는 [그림 X–1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하는 주기인 2월 이후 9월까지 지난 2년에 비해 증가폭이 적게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9월까지의 감소폭은 점점 커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9월에 폭행(상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차 급증기와 시기를 같이하는 2020년의 8–9월에는 다른 해에 비해 폭행(상해)범죄의 발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17] 코로나19 전후 일일 강도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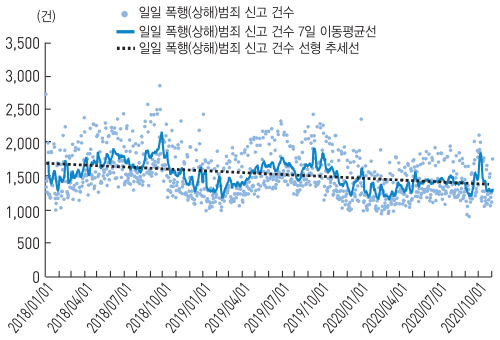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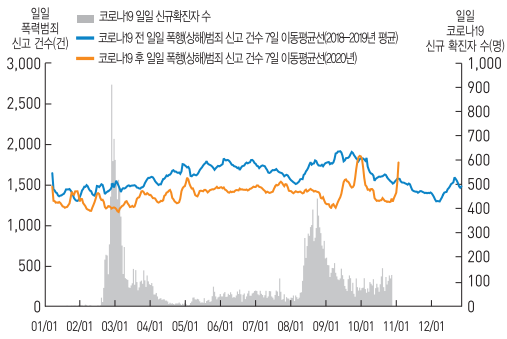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그림 X-18] 코로나19 전후 일일 폭행(상해)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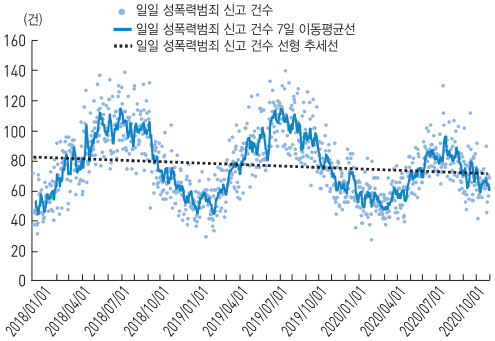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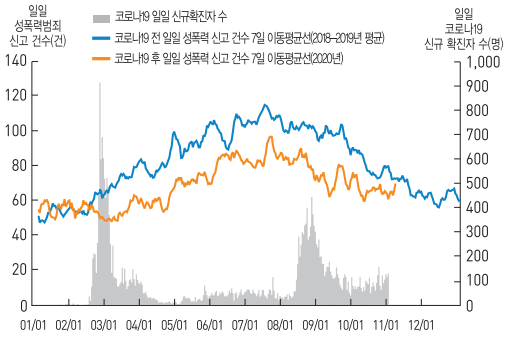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그림 X-19] 코로나19 전후 일일 성폭력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코로나19와 젠더폭력범죄

성폭력범죄

성폭력은 지난 3년간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기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주기성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도 이러한 주기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그림 X-19-1).

[그림 X-19-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월 초까지는 직전 2년에 발생한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인 2월 이후에는 직전 2년의 동일 기간에 비해 다소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급증기 직후인 4월과 2차 급증기 직후인 9월에 발생 건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정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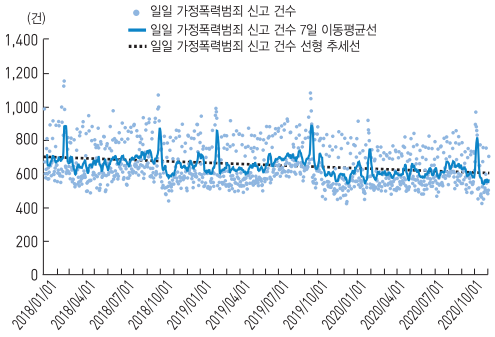
가정폭력범죄는 [그림 X-20-1]에 나타난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의 가정폭력 사건은 지난 2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적게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전반적인 감소추세인지 코로나의 영향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2020년의 감소폭이 직전 2년의 감소폭보다 조금 더 크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급증기인 2월과 8월을 전후한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

데이트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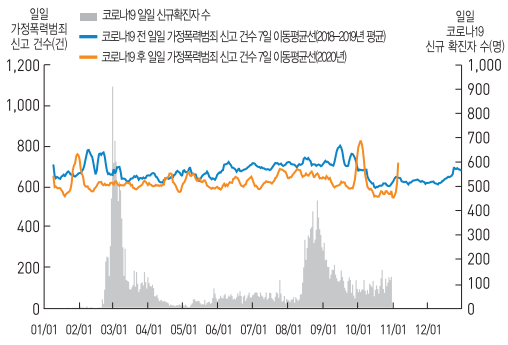
데이트폭력범죄는 지난 3년간 증감을 거듭하지만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고 있으며, 다

[그림 X-20] 코로나19 전후 일일 가정폭력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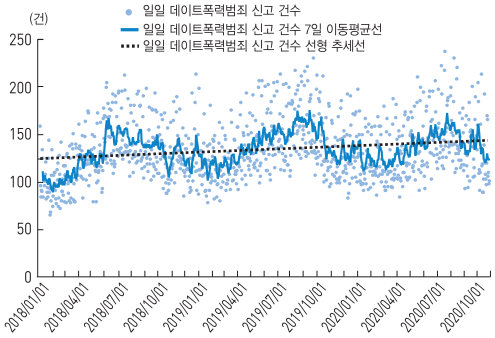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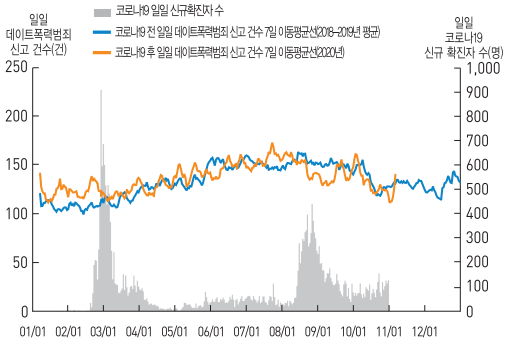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그림 X-21] 코로나19 전후 일일 데이트폭력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다소 증가하는 주기성을 보인다(그림 X-21-1).

2020년에도 이러한 주기성은 유지하면서 지난 2년간 발생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X-21-2). 즉 코로나 발생 이후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은 예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1차 급증기나 2차 급증기의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코로나19와 재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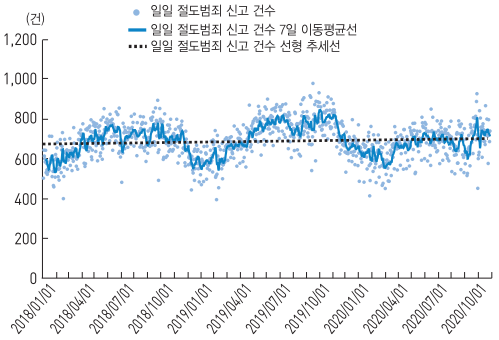
절도범죄

절도범죄는 지난 3년간 증감을 거듭하면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증가추세가 그친 것으로 보인다(그림 X-22-1).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한 [그림 X-22-2]를 보면, 2020년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월 초까지는 지난 2년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다소 많이 발생하여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증가추세가 멈췄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절도범죄의 발생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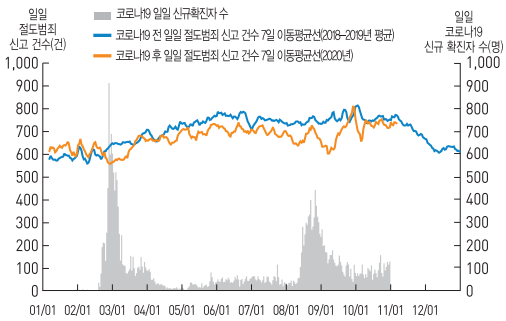
절도범죄의 경우 코로나 1차 급증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가 2차 급증기에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8-2019년 평균 발생 건수와 2020년 평균 발생건수의 차이가 가장 큰 달은 8월이었으며, 1월과 2월에는 2020년의 발생이 더 많았다.

[그림 X-22] 코로나19 전후 일일 절도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사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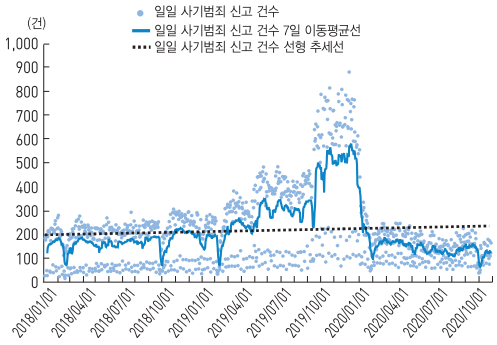
사기범죄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증가추세를 멈추고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그림 X-23-1).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한 [그림 X-23-2]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월 초까지는 2020년의 발생

건수가 지난 2년간 발생 건수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월 말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예년과 전혀 다른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차 급증기 이후 조금씩 감소하였다가, 2차 급증기 이후 감소폭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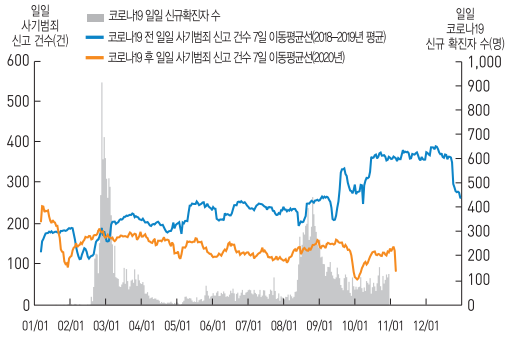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기범죄의 112 신고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여기에는 경찰인지사건, 경찰서에 직접 고소고발한 사건 등 112 신고를 통하지 않은 사건들은 포함되지 않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기범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건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X-23] 코로나19 전후 일일 사기범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2018.1.1-2020.10.31

1) 신고 건수 추이



2) 코로나19 전후 신고 건수 추이 비교



주: 1) 코로나19 전 신고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일일 신고 건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출처: 치안정책연구소, 「전국112신고접수: 2018.1.1-2020.10.31」, 원자료,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http://ncov.mohw.go.kr/). 2021.10.31.

맺음말

지금까지 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후에 나타난 범죄 발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폭력범죄는 그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대면 접촉의 감소로 인한 범죄 기회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젠더폭력 중 성폭력 범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인 대면접촉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적인 대면접촉은 감소

하지만 친밀한 집단 내부에서의 접촉은 증가하여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범죄유형은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분석 데이터가 신고 데이터라는 것과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재산범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 양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면 접촉의 상황을 감소시켜 범죄의 기회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발생은 전반적인 범죄를 감소시켰으며,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그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양상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전후 범죄 발생 추이의 비교만으로는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간의 행위이므로 코로나19의 발생 및 급증만이 범죄 발생 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코로나19가 범죄 발생 양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매개요인과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평면적인 비교만으로는 그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감염병 대유행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분석과 이론적인 논의가 더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형민 · 장광호 · 임운식. 2021.「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Boman, J.H., Gallupe, O. 2020. "Has COVID-19 Changed Crime? Crime Rate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andemic."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 537 - 545. https://doi.org/10.1007/s12103-020-09551-3.

Campedelli, G.M., Favarin, S., Aziani, A. et al. 2020. "Disentangling community-level changes in crime tren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hicago." *Crime Science* 9, 21. https://doi.org/10.1186/s40163-020-00131-8.

Estévez-Soto, P.R. 2020. "Crime and COVID-19: effect of changes in routine activities in Mexico City." *Crime Science* 10, 15. https://doi.org/10.1186/s40163-021-00151-y.

Nivette, et al. 2021. "A global analysis of the impact of COVID-19 stay-at-home restrictions on crime." *Nature Human Behaviour* 5, 868 - 877. https://doi.org/10.1038/s41562-021-01139-z.